

# 100% 승률에도... 무너진 안세영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사 진)의 36연승 무패 행진이 '만년 2인자' 왕즈이(중국)의 설욕전 앞에 멈춰 섰다.

안세영은 8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유틸리타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0-2(15-21 19-21)로 졌다.

배드민턴 전영오픈 2연패를 노리던 안세영의 결승 상대가 왕즈이로 확정됐을 때만 해도 안세영의 우승을 의심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최근 10차례의 맞대결에서 매번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던 세계랭킹 2위 왕즈이가 안세영을 넘어설까란 쉽지 않아 보였다.

자국 언론에서조차 '공안중' (안세영 공포증)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안세영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왕즈이였다.

하지만 이날의 왕즈이는 달랐다.

첫 게임 1-3에서 4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바꾼 왕즈이는 안세영의 끈질긴 추격에도 단 한 번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고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게임 역시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으나 13-13에서 왕즈이가 3연속 득점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안세영은 막판 16-20에서 3점을 몰아치며 1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마지막 대각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왕즈이는 승리가 확정되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다 이내 관중석을 향해 포효하며 10연패 사슬을 끊어낸 설욕의 순간을 만끽했다.

中 왕즈이에 0:2... 36연승 마감 전영오픈 2연패 꿈도 '와르르'

남북 서승재·김원호 정상 포효 박주봉·김문수 우승 후 40년 만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최초의 전영오픈 2연패를 끊었던 안세영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덴마크오픈 이후 이어온 무패행진도 36연승에서 마감됐다.

안세영의 아쉬움은 남자복식 '황금 콤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가 달랐다.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는 결승에서 말레이시아의 아론 치아-소위익(2위) 조를 상대로 2-1(18-21 21-12 21-19)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이 둘은 1986년 박주봉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김문수 이후 한국 선수로는 40년 만에 남자복식 2연패에 성공했다.

출발은 쉽지 않았다. 첫 게임 내내 끌려가다 막판 18-18 동점을 만들었으나 연속 실점하며 기선을 내쳤다.

하지만 2게임부터 반격이 시작됐다. 단 한 번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한국 조는 운명의 3게임 먼저 주도권을 넘겨줬다. 끈질기게 추격하던 한국 조는 3번의 동점 끝에 15-16 상황에서 과상공세로 3연속 득점을 올리며 역전극을 완성했다.

세계 랭킹 4위에 빛나는 여자복식 듀오 백하나와 이소희(이상 인천국제공항)도 결승에서 중국의 류성수-탄닝(1위) 조에 0-2(18-21 12-21)로 져 준우승했다.

둘은 2024년 이후 2년 만에 전영오픈 금메달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글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진에어 2025-26 V리그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대한항공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KOVO

## 봄 배구 선두 경쟁 '안갯속'

男 대한항공, 현대 1점 차 KB·한전·우리 티켓 전쟁



프로 배구 진에어 2025-2026 V리그

의 마지막 6라운드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봄 배구를 향한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남자부에선 1위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 여자부에선 1위 한국도로공사와 2위 현대건설이 이번 주에도 격렬한 선두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정규리그를 3경기 남겨둔 가운데 승점 66(22승 11패)를 기록 중이다. 마찬가지로 3경기를 남긴 현대캐피탈(승점 65 21승 12패)을 승점 1차로 앞서 있다.

4연승을 거두며 챔피언 직행에 가까워졌던 대한항공은 6일 5위 우리카드(승점 50 17승 16패)에 일격을 맞으면서 현대캐피탈과의 승점 차를 더 벌리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외국인 주포 카일 러셀(등투명 러셀)이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임동혁과 정지석 등 에이스의 활약으로 1위 수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3위 지키기에 나서는 KB손해보험(승점 55 18승 16패)과 12일 오

우레 9일 오전 현재 피홈런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한국이다.

우리나라가 3경기에서 홈런 8개를 맞았고, 그다음은 7개 홈런을 내준 체코다.

C조 경기가 개최되는 도쿄돔에서 홈런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미 4경기를 다 치른 대만은 피홈런이 4개에 불과하다. 일본은 3개, 호주는 1개 홈런만 허용했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현대캐피탈은 우리카드, 7위 삼성화재와 차례로 대결한다.

각각 올 시즌 상대 전적 4승 1패, 5전 전승을 기록해 1위 탈환을 이뤄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한국전력과 우리카드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단두대 매치를 벌인다. 경기 결과에 따라 봄 배구 진출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선 2승 3패로 한국전력이 열세다.

여자부 역시 1위 싸움이 뜨겁다.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66(23승 11패)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현대건설이 승점 62(21승 13패)로 뒤쫓고 있다.

최근 2연패로 힘이 빠진 현대건설은 7위 경관상(승점 26 8승 26패)과 12일 원정에서 격돌한다.

'블로킹' 양효진이 은퇴로 빠진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 카리 가이스버거(등투명 카리)와 자스투스 아우치(등투명 자스투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3위 사수에 사활을 건 흥국생명(승점 55 18승 16패)과 13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2승 3패로 흥국생명에 뒤지는 도로공사는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등투명 모마)와 강소휘가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주축 선수 레베카 라셀(등투명 레베카)과 정윤주, 김다은, 최은지의 고른 활약으로 분전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는 10일 IBK기업은행전과 도로공사전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이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3위를 맹추격 중인 4위 GS칼텍스, 5위 IBK기업은행의 뒷심도 팬들의 시선을 끈다.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2차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일본 오테니 선수가 홈런을 치고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팀은 '홈런 공장'... 3경기 8개 최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극적인 8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고비마다 홈런을 허용하며 힘겨워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인 2026 WBC 조별리그 C조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인 한국은 3경기에서 홈런 8개를 얻어맞았다.

5일 열린 체코와 1차전에서 테린 바브라에게 3점포를 내준 것을 시작으로 7일 일본전에서는 홈런 4개를 맞고 고개를 숙였다.

스키 세이아(시카고 컵스)가 2개를 쳤고, 오테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요시타 마사타카(보스턴 레드삭스)가 1개씩 때리는 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선수들이 쏟아 올린 대포에 6-8로 졌다.

또 8일 대만을 상대로는 장위(푸방 가디언스), 정종저(보스턴 레드삭스), 스투어트 페어차일드(롤리블랜드 가디언스)에게 한 방씩 3대를 얻어맞고 결국 4-5로 분패했다. 정종저와 페어차일드는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고는 있으나 한국을 상대로 홈런을

일본전서 4개나 얻어맞아 대만에게도 3개 헌납 수도

친 일본 선수들과는 달리 메이저리보다는 마이너리그에 더 가까운 선수들이다.

올해 WBC 본선에 출전한 20개 나라 가운데 9일 오전 현재 피홈런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한국이다.

우리나라가 3경기에서 홈런 8개를 맞았고, 그다음은 7개 홈런을 내준 체코다.

C조 경기가 개최되는 도쿄돔에서 홈런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미 4경기를 다 치른 대만은 피홈런이 4개에 불과하다. 일본은 3개, 호주는 1개 홈런만 허용했다.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

박재역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